

세계기상의 날 기념, 「2024년 기상기후사진전」 개최

- 일상 속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과 자연재해 현상

부산지방기상청(청장 이은정)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세계기상의 날(3.23.)을 기념하고,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3월 21일(목)부터 27일(수)까지 부산시청 도시철도 연결통로에서 ‘2024년 기상기후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기상청에서 주최한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30점을 전시한다.

주요 작품은 폭설이 내려 얼음 속에 갇힌 듯한 백록담의 모습을 담은 ‘얼음 속 한라산(대상, 김정국)’, 아름다운 단풍길로 유명한 보팔재에 눈이 내린 모습을 촬영한 ‘보팔재의 겨울(금상, 이상운)’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 등의 신비로운 사진을 일주일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사진전이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부산시청을 방문하는 지역민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기상·기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서태건 (051-718-0420)
		담당자	주무관	구다송 (051-718-0433)



'24.3.21.(목) ~ 27.(수)

부산시청 - 도시철도 연결 통로

 부산지방기상청